

이광수(李光洙)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병(病)을 바라보는 관점

신윤주*
shin0613@de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나쓰메 소세키의 「漱石日記」 |
| 2. 이광수의 「아프던 이야기」 | 4. 나오며 |

주제어: 이광수(Lee Kwang-su), 나쓰메 소세키(Natsume Soseki), 병(Illnesses), 작가의식(Writer Consciousness), 기록물(Documentary)

1. 들어가며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 한국과 일본에서는 마스크를 통해 춘원 이광수(李光洙, 1892~1950)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 이하 소세키라 함)를 다양하게 재조명의 시선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특히 이광수에게는 「작품 『무정』 탄생 100주년」, 소세키에게는 「사후 100년」이라는 특별한 시간적 의미가 묘하게 비슷한 시기에 겹친다. 이광수와 소세키 각각의 연구뿐만 아니라 비교 연구로도 이미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어 왔다. 그럼에도 이광수를 연구하는 연구자와 소세키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시선처리나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 전국에서는 박물관, 도서관을 비롯 각 대학과 지역구에서는 소세키 사망 100주년을 맞아 그를 추모하는 세미나, 콜로키움과 같은 다양한 행사가 열렸으며 그 추모 열기가 뜨거웠다. 단적인 예로 2016년 3월 26일부터 5월 22일까지 「100年目に出会う夏目漱石」라는 특별전, 같은 해 4월 16일 水村美苗의 「漱石と日本と日本語と日本文学」과 4월 29일 「夏目房之介の漱石の孫」라는 기념강연회를 神奈川近代文学館에서 주최하여 한국과 일본의 소세키 연구자들에게 소세키 연구에 흥미로움을 안겨주었다. 최근 神奈川近代文学館에서는 「夏目漱石作品のPOPコンテスト」 結果発表, <朗読と対談>, <文芸漫談>, <小型記念日付印 押印イ

* 동의대학교 문학인문교양학부 조교수

1) <http://www.kanabun.or.jp/exhibition/4344/>(검색일:2018.3.20.)

ベント>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자료 DB구축 역시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16년 12월 10일 도쿄에서 열린 <나쓰메 소세키 국제 심포지엄>에서 일본 니쇼가쿠사대학(二松學舎大學)과 오사카대학(大阪大學) 연구팀이 개발한 <소세키 안드로이드(인간형 로봇)>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실제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문학계에도 신선한 바람을 예고했다. <소세키 로봇>의 등장은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 국외 많은 소세키 연구자에게 설렘과 긴장을 안겨주어 향후 소세키 연구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일본 오사카대학교 로봇 연구 권위자인 이시구로 히로시(石黒浩) 교수가 감수를 맡은 <소세키 로봇>은 소세키의 생전 신체 검사 기록과 45세 때 촬영한 사진, 사망 직후 제자들이 만든 소세키의 안면상(顔面像)을 바탕으로 실물과 최대한 흡사하게 제작되었다. 또한 목소리는 소세키의 손자 후사노스케(房之介)가 연기했다. 소세키 연구는 시대적, 문화적, 내셔널리즘(nationalism)을 넘어 소세키만의 고유한 의식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소세키 주변 인물관계에 집중하여 재조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하기에 소세키의 일기, 수필, 강연, 메모와 같은 기록물 『記』에 주목하여 새로운 연구들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세키 연구는 평행선을 달릴 뿐일 것이다. ‘우월한, 위대한, 탁월한’이라는 긍정수식어를 양산하는 소세키의 글쓰기만이 아닌 또 다른 이면을 찾아볼 계기가 될 것이다.

반면, 한국의 춘원 이광수는 어떠한가? 춘원 이광수의 경우 한국 최초의 근대소설 『무정』이 2017년에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무정』은 매일신보에 1917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 연재되었다. 실제로 이광수 연구는 문학적인 의의가 있어서인지 논문만 200여 편에 달하며 끊임없이 새롭게 읽어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학계 인사들이 문학상, 문학관 만들기를 수차례 추진했으나 무산되었다는 점은 사후 100주년을 맞이한 소세키와는 사뭇 다른 연구자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동서문화사가 2016년에 제정하기로 한 춘원문학상이 우여곡절 끝에 2017년 12월 12일 제1회 춘원문학상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친일경력이 있는 친일지식인 이광수를 기리는 상으로 제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문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응교 숙명여대 교수는 “육당과 춘원은 호소력이 뛰어난 연설이나 글로 많은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보낸 이”라면서 “비판의 대상이지 문학상을 만들 대상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춘원연구학회>에서 2016년 9월 24일 춘원의 자필 시집을 발표하는가 하면 최근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의 공동 작업이 연구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 예로 2016년 12월 21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이광수를 전공하고 있는 하타노 세스코가 2016년 9월에 출간한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로 특강²⁾이 그러하다.

2) 친일경력 육당·춘원 기리는 문학상 현실로…문인들 반발, 동서문화사 지난해 12월 ‘육당학술상·춘원문학상’ 제정하고 시상(<http://www.news1.kr/articles/?2918603>, 검색일:2019년 3월 20일)

비슷해 보이는 두 작가는 극명한 평가를 받으며 양분되는 지점에 있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신체적 병의 과정을 동시에 고찰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두 작가로서의 탄생 배경, 작품 소재 탐구, 두 작가가 바라본 근대문명 등 기존 연구를 계승하면서 논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 작가로 대표되는 이광수와 소세키 두 사람 모두에게 발병되었던 병(病)이 결국 지식인이자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병으로 인해 두 사람 모두 병상에서 일련의 수필과 일기를 통해 병(病)을 바라보는 그들 작가로서의 관점이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이광수의 「아프던 이야기」

이광수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콜로키움과 HK위크숍 개최를 통해 2013년 6월 21일 ‘한국에서의 자기서사의 전개와 독법’, 2014년 9월 18일 ‘春園學의 새로운 地平 -이광수연구의 새 자료와 과제(New Horizons of the Chunwon-Studies)’, 2016년 12월 21일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라는 다양한 주제로 특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전에는 자료가 미정리 상태라는 시대적 제약이 있었지만 이후 많은 자료가 연구자들에 의해 발굴 정리되고 있고 신문도 데이터베이스화되면서 이광수가 쓴 텍스트 즉 작품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주위의 기록물도 함께 확인이 가능한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읽어내어 분석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광수에게 병이 발발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작가라는 직업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타노 세쓰코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1916년 가을부터 이광수는 상당한 분량의 원고를 쓴 시기이며 작품 『무정』을 쓰기 시작한 무렵 결핵이 발병했고, 『무정』을 쓰던 당시

3) 하타노 세쓰코는 이광수를 비롯하여 한국 근대작가 연구에 관한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고, 최근에는 이광수 자료집 간행 작업에도 힘쓰고 있다. 교수로 일하다보니 책 쓸 시간이 나지 않아 조기 퇴직을 선택했고 자료를 준비하는데 6년이 걸렸지만 책은 1년 만에 쓸 정도로 이광수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서로 『李光洙·<無情>の研究-韓國啓蒙文學の光と影』(2008), 『韓國近代作家研究-李光洙·洪命憲·金東仁』(2013), 『韓國近代作家たちの日本留學』(2013), 『李光洙-韓國近代文學の祖と「親日」の烙印』(2015)이 있고, 역서로는 『無情』(2005), 『夜のゲーム』(2010), 『金東仁作品集』(2011), 『樂器たちの圖書館』(2011) 등이 있다.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는 2015년 9월에 출판된 《韓國近代文學の祖と「親日」の烙印》(이광수-한국 근대문학의 아버지와 ‘친일’의 낙인)의 번역서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장편소설 『무정』을 쓴 작가 이광수의 생애를 그리고 있다. 하타노 세쓰코는 책을 집필할 당시 가능한 실증적인 자료에 기초를 두었고 이전에는 자료가 미 정리 상태라는 시대적 제약이 있었지만, 그 후 많은 자료가 발굴·정리되고 신문도 데이터베이스화되면서 이광수가 쓴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주위의 기록도 함께 저서에 수록했다고 밝히고 있다.

학비는커녕 식비 낼 돈도 부족⁴⁾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광수 전집 4권을 살펴보면 1928년 11월 질병으로 일 년 정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그 시기에 작성된 『병창어』에 이어 『단중애사』를 『동아일보』에 연재한 기록들을 읽을 수 있다. 특히 1927년부터 1929년은 이광수의 삶에서 병으로 인해 결코 몸과 마음이 자유로울 수 없었던 시기로 꼽을 수 있다. 감기를 자주 앓았을 뿐만 아니라 1929년 2월경에는 이유 없이 몸이 심하게 붓기 시작했고, 결국 신장결핵 판명을 받게 된다. 이후 수술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하여 『동아일보』에 연재하고 있었던 『단중애사』를 병으로 인해 휴재(休載) 하기에 이른다. 1929년 5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이후 부작용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게 된다. 이 경험은 이광수에게 작가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무거운 괴로움과 번뇌를 겪게 했다. 본 장에서는 1927년부터 1929년 이광수의 삶에 찾아온 병마로 인해 남긴 기록물에 초점을 맞추어 이광수전집 제8권 수필 「아프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광수가 병을 대하는 자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광수와 병과의 관계에 대해 안영미는 1910년대 이광수의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병 모티프’에 착안하여, 작중 인물이 앓는 병의 분석을 통해 작가의 의식⁵⁾을 살피고 있다. 이광수 초기 단편에 나타난 교육환경이 작중 인물들에게 병을 야기 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선각자인 학교설립자, 교사 유학생과 같은 주인공이 역동적 활약상이 아닌 병(病)과 병상(病床) 모티프로 표출된다는 논의는 흥미롭지만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춘원 이광수에게 있어 1927년은 다사다난한 해로 기록되어 있다. 허영숙과의 사이에서 차남 봉근이 태어났는데, 이미 전처가 키우고 있던 장남 진근이 있었다하더라도 서른여섯의 이광수에게 차남 봉근의 존재는 기쁨 그 자체였다. 그 기쁨 이면에는 불유쾌함이 존재했다. 정신적 기쁨과 동시에 육체적 고통이 따랐던 것인데 이광수와 병의 관계에서 제일 첫 1기로 작품 『재생』을 집필하던 1925년 3월 척추 카리에스를 수술했던 시기이다. 하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은 1927년 1월 폐병이 재발했고, 객혈을 몇 번이나 하여 몸이 힘들었던 시기였기에 신천 온천, 연등사로 요양을 하며 삶을 이어가야 했다. 생후 5개월밖에 안된 아이 봉근을 업고 허영숙이 이광수가 요양했던 연등사로 찾아왔을 때도 혹시라도 아이에게 자신의 병이 옮을지 몰라 재촉하며 둘러보냈던 이광수는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죽을힘을 다 해 종이와 펜을 잡고 무엇인가를 쓰며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은 아내와 아들이 자신이 요양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온 일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한 것, 그것은 결국 아내와 아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4) 하타노 세츠코, 최주한 옮김(2016)『이광수, 일본을 만나다』푸른역사, p.164 참조.

5) 안영미(2002)「이광수 초기 단편에 나타난 ‘병 모티프’고찰」『어문논총』Vol.-No.37, pp.177-178 참조.

제대로 해야겠다는 이광수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윤식은 이때의 이광수를 두고 「몸이 고달프고 신경이 몹시 날카로워진 춘원은 한적한 산골 절간에서 홀로 지내기가 너무도 괴롭고 쓸쓸하였다. (중략) 병을 이겨야 된다는 의지력이 감정을 이겨내기란 너무 힘겨웠다」⁶⁾고 논했다. 이광수의 「아프던 이야기」에는 「入院, 「手術, 「죽기 살기」로 세 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담겨 있다.

나는 기운만 나면 <端宗哀史>를 써야 한다. 그것을 쓸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은 아직 힘 드는 글을 쓸 기운이 나지를 아니하였다. (중략) 이렇게도 생각지 아니함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라도 써야 할 것같이 생각이 되고 또 쓰고도 싶다. (중략) 수술이라 함은 원편 콩팥을 떼어 버리는 일이다. 콩팥에 結核菌이 들어가서 그 속이 고름 투성이가 되었으므로 이것을 떼어 버리지 아니하면 불원간 膀胱에 전염하고 다시 아직은 성한 오른편 콩팥에까지 전염할 위험이 있어서 마침내 그 때문에 콩팥 주인인 나의 생명까지도 없어지게 된다고 하며, 이 병에는 外科的 手術로 병든 쪽을 떼어 내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한다. (중략) 지금은 두팔을 깨뜨리고 뇌수술을 하는 華佗도 西洋에는 수두룩한 모양이다. 朝鮮서는 아직 뇌수술은 있어 본 일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醫術이 발달된 이때에 그까짓 콩팥 한 개쯤 떼어 버리는 것 같은 것은 外科醫 눈으로 보면 식은 죽 먹기다. (중략) 인간이 될락말락한 조그마한 病室 이것이 내가 앞으로 三, 四주일 동안 사생을 결판할 방이다. 나아서 걸어 나가려나, 죽어서 들러 나가려나.

(『李光洙全集8』-病床錄-아프던 이야기:入院⁷⁾)

수술을 위해 입원 중인 이광수가 의술이 발달되어 자신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다가도 이내 조그마한 병실에서 어찌면 죽음을 맞이할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인 감정들을 담담히 쓰고 있다. 강원국은 글 쓰는 사람에게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고 정신과 전문의 이나미는 창조적인 에너지는 권태, 불안, 긴장, 슬픔, 우울, 외로움 등 소위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온다⁸⁾고 지적했다. 이광수가 수술을 앞두고 「기운만 나면 집필 중이었던 작품을 써야한다는 의무」감을 가진 것 역시 수술을 앞둔 불안과 긴장을 글을 쓰는 것으로 치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광수는 자신의 병을 무기력하게 수용하지 않고 글쓰기 작업을 통해 파란 속 우울과 자포자기 가운데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일궈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인이 아닌 작가였기에 병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인다.

6) 김윤식(1999)『이광수와 그의 시대2』술, p.168

7) 본장에서 원문인용은『李光洙全集』(三中堂, 1971)에 따랐다. 이하동일.

8) 강원국(2018)『강원국의 글쓰기』메디치, pp.94-95 참조

병원에서 입원과 수술, 통원치료와 같은 반복적인 시간을 거듭한 경험은 작품 곳곳에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정』(1917)에서는 기생 계향이 걸린 매독, 폐결핵이라는 질병은 『혁명가의 아내』(1930), 『유정』(1933)에 등장하는 인물이 병으로 인해 겪는 심리와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김소륵은 이광수 소설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고,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질병 연구는 막대한 양의 기존 연구사 속에서 다소 빈약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⁹⁾을 지적하고 있다.

입원한 날 밤부터 열이 나서 氣管支炎으로 심여 일이나 고생을 하고 五月二十四日 金曜 午後에야 비로소 手術을 받기로 작정이 되었다. (중략)

『아무 것도 잡수셔서는 안 되어요』

하고 간호부는 어린애 타이르듯이 다짐을 받았다.

감기로 여러 날 동안을 당초에 입맛이 없다가 이틀째나 입맛이 조금 나려고 할 때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은 미상불 야속한 말이다. (중략) 못 먹으려니 하면 부쩍 먹고 싶다. (중략) 나는 지팡이를 끌고 마당에 나섰다. (중략) 다시는 여기도 못 나와 불는지 몰라 하고 혼자 웃었다. (중략) 다시는 이 재주를 못 부러 불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내가 당하는 수술이란 것이 꽤 중대한 일 같다. (중략) 「배가 고파」하는 것이 이때 내 영혼의 가장 큰 부르짖음이었다.

(『李光洙全集8』-病床錄-아프던 이야기:手術)

데이비드 호킨스(David Hawkins)는 『의식 혁명』에서 감정, 태도 등 인간의 의식 수준을 20부터 1,000까지 수치화한 ‘의식 지도’¹⁰⁾를 제시했다. 수치심은 20이고 700부터 1,000까지는

9) 김소륵(2009)「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질병 모티프를 중심으로」『이화어문집』Vol.27 No, p.119
 10) 데이비드 호킨스 저, 백영미 역(2011)『의식 혁명-힘과 위력, 인간 행동의 숨은 결정자』판미동, 에서 의식 수준을 나타내는 차트 의식지도는 다음과 같다.



깨달음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의식 수준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글의 소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높낮이가 없다. 따라서 모두가 핵심적인 소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광수가 병원에 있는 동안 수필에서 유난히 자주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아프다는 표현보다는 배가 고프거나 먹고 싶은 것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이광수가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는 동안에는 살아있다는 것, 먹고 싶다는 의식이 지배하고 있다.

飢와 渴! 그리고 아픈 것! 그것은 絶對다.

「배고파, 「목말라, 「아이고, 아파」—이것은 生物이 받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다. 나는 지금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중략) 링겔이란 약을 하루에 두어 대접이나 정맥에 넣고 (중략) 나의 몸과 마음은 이 모양으로 죽을 주니를 마치고 가장 태연하였다. 죽음이 어느 때에나 오너라 하는 태도였다. (중략) 아름다운 것을 모든 눈, 물소리, 새소리와 아름다운 이의 속사임을 듣는 귀,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한량없는 말을 하고 혹시 한 두 번 남의 기쁨이 된 말도 하여 본 입, 어리석은 부끄러운 심술곳은 혹시 한 두 번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궁리를 하던 머리, 평생에 채우려고 애써도 채워보지 못하던 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나.(중략)

(『李光洙全集8』-病床錄-아프던 이야기:죽기살기)

수술을 끝나고 수술후유증으로 심각해진 몸 상태와 그에 비해 정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담긴 「아프던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 「죽기살기」는 이광수가 병으로 인해 죽음을 대하는 자세를 읽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죽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니다. 첫째 무서워한대야 죽음이 물러갈 것도 아니니 무서워하면 다만 어리석고 점잖지 못하다는 치소를 받을 것이다. (중략) 둘째로 죽는 것은 나를 여러 가지 곤경에서 건지어 내어준다. 내 좋지 못한 팔자에서 오는 모든 괴로움-가난, 못남, 게다가 이를 힘도 없는 주제넘은 여러 가지 욕망, 앓는 것, 가족에 대한 근심, 조국에 대한 모든 근심과 설움, 내게 향하는 세상의 조롱과 친구들의 냉정-에서 완전히 나를 건지어 낼 이는 오직 검고 냄새나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또 셋째로 죽는 것이란 그렇게 힘 드는 일이 아니다. 아프거나 말거나 가만히 누워 있노라면 죽어지는 것이니 내 힘이라고는 손가락 하나 놀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중략)

죽거든 내 몸일랑
의학생을 내어주오.
뼈나 냉장이나
마음대로 깨라시오.
사랑던 祖國에 바칠

最後奉仕이외다.

다행히 여러 恩人들의 살리려는 정성의 덕을 입어 이제는 살아날 가망이 많아지어서 이런 것을 쓰게 되었다. (『李光洙全集8』-病床錄-아프던 이야기:죽기살기)

「入院」에서 밝혔던 것처럼 당시 조선의 의술은 아직 경험 부족으로 발달단계에 있었다는 것을 이광수는 의식하고 있었고, 수술이 잘못되어 죽게 될 경우 자신의 몸을 기증하여 의술발달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적어도 병을 통해 자신이 겪은 육체적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최소화되기를 바란 희망이 담긴 태도로 읽힌다. 「죽기살기」 마지막에 밝힌 恩人은 간접적으로 허영숙을 떠올리게 한다. 결핵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의사의 지시에 잘 따르면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는 신념을 갖고 이광수를 챙겼던 의학생인 허영숙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러한 신념과 극진한 간호 덕분에 이광수는 이후 사경을 헤매는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게 된다. 우리가 작가를 연구하고 그 작가의 사상, 인식구조를 파헤치는 데 늘 함께 연구되는 것은 1차적으로 작가의 글이고 그 글을 통해 작가가 짚어낸 인생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다. 이광수는 당대 지식인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삶이 고단했던 그 이유가 그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찾아온 병(病)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세계는 이미 혼란과 혼돈 그 자체였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더불어 작품 외에 남긴 수필과 일기, 서간문을 통해 병으로 인해 작가의 삶의 영역을 통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나쓰메 소세키의 「漱石日記」

소세키는 영국 유학 기간에 「부족한 유학비」, 「신체적인 열등감」, 「영문학 연구로서 <문학론> 집필에 대한 몰두」, 「소화기관의 쇠약에 의한 소화불량」, 「운동부족」, 「유학생으로서 언어장벽」 등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신경쇠약¹¹⁾에 걸려 결국 귀국 후 위장의 상태가 악화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광수는 1916년 『무정』을 집필하던 중 결핵에 걸렸고 이후 1929년 2월경 이유 없이 몸이 심하게 붓기 시작하여 신장결핵 판정을 받고 같은 해 5월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이후 찾아온 부작용이 결국 폐렴을 앓게 만들어 사경을 헤매게 했다. 소세키 역시 전기 3부작의 세 번째 작품인 『문』을 집필하던 1910년 6월, 위궤양으로 입원하였고 8월에 이즈(伊豆) 슈젠지 온천(修

11) 권혁건(2007)『나쓰메 소세키-생애와 작품』고려대학교출판부, p.131

善寺温泉)에서 요양생활을 하던 중, 800그램의 피를 토하고 생사의 기로를 헤매는 슈젠지의 대환(修善寺の大患)을 겪는다. 이처럼 유사한 시기에 두 사람 모두 삶과 죽음을 넘나들 정도의 경험은 입원과 수술, 병원생활과 요양생활, 그리고 육체의 고통에 대한 기분을 담담하게 수필과 일기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더불어 이광수와 소세키에게 병은 단순히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 죽고 싶다’라는 회피적인 태도가 아닌 작가로서의 삶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소세키의 많은 작품들과 신경쇠약 및 히스테리 그리고 불안과 관련하여 언급된 논문은 많이 진행되어 왔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1905)에서 고양이의 주인 쿠사미(苦沙彌)는 사회에 대한 비판과 문명에 대한 불평으로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고 있고, 『그 후』(1909)에서 다이스케(代助)는 사회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서양문명을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와의 괴리를 의미하는 신경쇠약 증상이 나타나는 인물로 묘사된다. 『만한 이곳저곳』(1909)을 통해 ‘빨리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육체에 대한 고통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나올지도 모를 만큼 큰 고통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알게 해 주는 작품이다. 『문』(1910)의 경우 불륜을 저지르게 된 부부의 삶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신경쇠약은 일상의 권태로운 질병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생각나는 일들(思ひ出す事など)』(1910)은 슈젠지로 가기 석 달 전의 병원에서의 구체적인 생활을 담고 있는데, 삶과 죽음, 병이라는 단어는 작품의 각 장마다 빈번히 등장시키며 삶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고 있다. 『유리문 안에서』(1915)에서는 그 동안 써왔던 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형태로 매 순간 건강하게 보내고 있는 일상에 만족할 줄 아는 자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깨닫는 인간의 도리를 작품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초기 작품부터 1915년 『유리문 안에서』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에는 유난히 소설과 수필을 통해서 ‘몸을 의식이 있는 대로 자유롭지 못할 때’ 타인율,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름을 다양한 형태로 작품에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세키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으로는 NHK 방송을 통해 강상중의 담화, 와세다 대학교 명예교수 나카지마 쿠니히코(中島国彦)를 비롯한 일본대학의 소세키 연구자들은 소세키 인물고증을 맡아 활발한 소세키 문학관 자료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16년 12월 3일 「소세키가 응시한 근대」라는 타이틀로 일본 NHK TV 특집 인터뷰 방송이 제작되었다. 도쿄대 명예교수 강상중을 중심으로 전남과학대 김정훈 교수와의 담화내용은 소세키를 새로운 시각으로 내다볼 방향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담화 내용에서 1909년 9월 29일, 1909년 10월 10일 주로 소세키의 일기 대목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김정훈 교수는 “일기에서 보이는 시와 같은 단편적인 글쓰기를 통해 사적으로 자신의 솔직한 기분을 토로한 것이며 나아가 조선에 대한 미묘한 국가, 정치적 문제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소세키에게 내재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소세키가 쓴 『漱石日記』¹²⁾를 통해 소세키가 병으로 인해 일상을 어떻게 마주했는지 들여다보고자 한다. 『漱石日記』는 영국 런던 유학생들의 일상이 담긴 「ロンドン留學日記」를 시작으로 「『それから』日記」, 「滿韓紀行日記」, 「修善寺大患日記」, 「明治終焉日記」, 「大正三年日記」, 「大正五年最終日記」로 되어 있다.

明治33(1900)年

9월 8일(토)

요코하마 출발. 엔슈(遠州) 바다에서 배가 조금씩 흔들린다. 식사를 할 수 없다.

9월 9일(일)

10시 고베 도착, 상륙. 스와(諏訪) 산 속에서 점심을 먹고 온천에서 목욕을 했다. 밤에 설사를 하고 저녁을 먹을 수 없었다. (『漱石日記』-「ロンドン留學日記」)

소세키는 일생에 두 번 해외로 나갈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는 1900년 9월 8일부터 1903년 1월까지의 영국 유학, 두 번째는 1909년 만주와 한국여행을 위해서였다. 『漱石日記』가 1900년 9월 8일부터 일기가 시작되고 있으므로 영국 유학을 출발할 때의 소세키의 몸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대략 알 수 있는 지점이다. 이 시기만 해도 소세키의 병세는 크게 나빠지 않았던 시기이며, 영국까지 41일 동안 가는 배 안에서 고단함이 위와 장의 상태를 자극하여 그 기분을 그대로 일기에 쓴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滿韓紀行日記』는 실제로 작품 『만한이곳저곳(滿韓とところどころ)』(1909)의 내용에서 중복적으로 읽히는 지점이 제법 있다. 「ロンドン留學日記」를 살펴보면 소세키 생애 중 가장 여유로운 일상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만년에는 신경쇠약이 심해지고 위의 상태가 위중해졌던 이유로 면회사절이라는 방책까지 써가며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줄이려 했지만 「ロンドン留學日記」을 살펴보면 일본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엽서를 주고받은 시간이 상당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소세키가 하숙하고 있는 근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차를 마시거나 만찬의 시간을 가지는 등 교류의 시간 또한 상당부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책을 사러간다든지, 새로운 책들을 읽기 시작한다든지, Metropole 극장에 가서 「The Royal Family」를 보고 너무 좋았다고 일기에 남기는 등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낸다. 런던에서 자신을 위해 보낸 시간은 소세키가 작가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있어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漱石日記』에서 소세키가 병에 대한 인지를 선명하게 했던 것으로 읽히는 부분은 육체와

12) 본장에서 원문인용은 平岡敏夫 編『漱石日記』(岩波文庫, 1990)에 따랐다. 이하동일.

정신이 건강했던 런던에서 보냈던 시간보다는 오히려 사경을 헤매고 피를 토하고 제대로 먹지 못해 심신이 가장 미약했던 시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을 집필하던 1910년 6월, 위궤양으로 입원. 8월에 이즈(伊豆) 슈젠지 온천(修善寺温泉)에서 요양생활을 하던 중, 피를 토하고 생사의 기로를 헤매는 슈젠지의 대환(修善寺の大患)을 겪었던 당시 소세키가 남긴 일기가 바로 「修善寺大患日記」이다. 의사의 기록을 보면 약 30분간 죽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때의 죽음의 체험과 병상에서의 생활은 이후의 작품에 영향을 준다.

明治43(1910)年

8월 6일(토)

11시 기차로 수선사로 향하다.

明治43(1910)年

8월 7일(일)

(중략) 변기에 앉았지만 변이 안 나온다. (중략) 위에 이상이 생긴 듯하다. 복부 팽만도 아니면서 (중략) 꼭 참고 잔다.

1910년 8월 6일 슈젠지로 와서 변을 제대로 보지 못한 기록은 유난히 자주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위의 통증이 심각해지고 있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월 21일(일)에는 「19일 피를 토한 후 자양관장」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결국 변을 제대로 보지 못해 자양관장을 처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로 「병세 양호, 병세에 특별한 이상 없음. 상태 좋아 이 상태라면 걱정 없다, 병세 같음, 이상 없다. 병세 점점 좋아지다」와 같은 문구들로 일정 기간 의료진처럼 일기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한다.

明治43(1910)年

9월 2일(금)

맑음. 병세 변화 없음. 오늘부터 스프를 세 번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먹는 것만으로도 좋다.

9월 19일(월)

(중략) 몸이 약해진 결과다. 밤에는 반대로 자지 못하고 때때로 눈을 떴다.

9월 20일(화)

어제부터 병에 걸리기 전에 읽었던 어려운 책을 자면서 조금 읽었지만, 머리의 상태는 병에 걸리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략) 이렇게 몸이 약해진 사람이 어찌서 철학적인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인지 이상하다.

9월 26일(월)

(중략) 병이 완쾌 되는 듯해서 나는 지금 다시 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있다. 완쾌

후의 생기는 병에 대한 관용인 것이다. 스트레스 없는 일생, 자기 마음대로의 욕구에 충실을 다하는 일상, 아침저녁으로 내 주변에서 봉사하며 보살핌과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회인들, 그리고 지인의 친구 혹은 나를 고용한 사람의 인텔리전트. (중략) 나는 하루라도 오늘과 같은 행복을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漱石日記』- 『修善寺大患日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Elisabeth Kubler-Ross)는 죽음의 과정을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로 나누어 설명¹³⁾한 바 있다.

과학이 진보할수록, 인간은 죽음의 진실을 점점 더 두려워하고 부정하게 되는 것 같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죽음을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하고, 죽은 사람들을 잠든 것처럼 화장하고, 설령 환자가 운이 좋아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해도 불안과 혼란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멀리 떠나보낸다.
(『죽음과 죽어감』 p.41)

우리는 무의식 세계의 은밀하고도 사적인 영역에서 죽음이 언제나 내가 아닌 옆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죽음을 성찰하는 일이란 인간의 전 생애에 극히 드문 일이며, 죽음은 자신이 직면하기 전에는 남의 일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소세키 자신의 병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서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화장실을 가는 지극히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상에서 부정하고 싶었을 것이다. 소세키는 『漱石日記』를 통해 유난히 건강상태, 날씨, 기분에 대해 세세하게 열거하면서 ‘책을 읽어야겠다’, ‘글이라도 써야겠다’라는 행위를 통해 일반인과는 달리 작가 소세키만의 병을 수용하는 관점 즉 수용의 자세로서의 작가 의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지점이다.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는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게 될 때 자기 인식 능력은 훨씬 배가될 것이며,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¹⁴⁾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사람의 행동이나 증상에는 당연히 원인이 존재하지

13)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저, 이진 역(2018)『죽음과 죽어감』청미

첫 번째는 ‘부정’이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심리적 단계인 ‘분노’이다. 어쩌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를 따지면서 화를 내는 것이다. 세 번째는 ‘타협’, 즉 협상의 심리적 단계로 넘어간다. 협상상태는 의사와 신으로 살게 해 달라는 것이지만 이 협상을 갈구하다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보통 우울해진다. 네 번째 단계인 ‘우울’은 절망의 단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수용’이 일어나게 된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환자에게 따라서는 이 다섯 단계들의 순서를 다르게 겪기도 하고, 어떤 이는 몇 단계나 모든 단계를 왔다 갔다 반복적으로 겪기도 한다. 이 다섯 단계는 퀴블러로스가 조사한 일반적인 통계적 결과이다.

14) 알프레드 아들러 저, 홍혜경 역(2016)『아들러의 인간이해』을유문화사, p.29

만 의식하지 못하는 목적이 생길 때 앞을 향해 살아갈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떤 체험을 했든 그것이 지금의 고단한 삶을 결정짓지는 않는다는 점이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아틀러는 “인간의 고민은 모두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언제나 늘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비롯 타인과의 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이광수에게는 아내 허영숙을 대신한 자리에 나혜석이 있었고, 소세키는 금전적인 이유로 늘 아내 료코와의 불협화음에 시달려 매주 목요일을 통한 제자들과의 교류가 있었다. 더욱이 위궤양이 심해져 신경이 예민해질 때는 <면회사절>이라는 문구를 집 대문에 붙여두며 관계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할 수 없는 데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산다는 것은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만 아니라 무언가를 해줌으로서 극복해야만 한다. 타인은 자신과 똑같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므로 힘으로 지배할 수는 없다. 특히 자신을 저버리고 남에게 맞춰서는 안 된다. 자신과 타인은 늘 관계가 있으며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하였기에 소세키는 이것을 늘 고민했다. 매주 목요일 제자 및 문인들과의 만남이 늘 즐겁지만은 않았다.

4. 마치며

이광수와 소세키에게 병명(病名)이나 병(病)의 원인은 시대사적, 개인사적으로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병을 수용하는 자세나 병으로 인해 작품을 쓰는 작가로서의 삶에는 상당부분 유사하다. 이광수는 1940년 2월 가야마 미쓰로(香山光郎)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했다. 지식인 학살명부에 대한 우려는 “조선인이라는 고집을 버리고 일본인이 되어 일본정신을 가질 것을 결심”하는 자신의 의지를 굳히는 시초, 나아가 지금의 이광수가 있게 만든 계기가 된다. 이광수와 소세키 문학은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도 식민지 시기의 글쓰기, 이광수의 아내 허영숙, 소세키의 아내 나쓰메 료코의 시선에 의한 남편, 혹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의 연구가 멈추어진 부분도 상당히 많다. 무엇보다 이광수와 소세키는 병(病)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병원생활, 요양과 같은 시기에 쓰여진 글들을 통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괴로운 속내를 꺼내고 있다.

도쿄대(東京大) 명예교수 강상중은 소세키에 대해 “자유를 구가하고 독립을 주장하며 자아를 내세우는 풍요로운 사회에서 왜 이렇게 다들 고독한가. 인간관계 안에 숨어 있는 에고이즘과 고독, 그리고 실낱같은 희망을 그려내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니이가타 현립대학교(新潟県立看護大学) 명예교수 하타노 세쓰코는 한국 근대문학을 전공한 일본인 학자로 연구서 『무정(無情)』을 읽는다』를 비롯 2016년 9월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를 출간한 바 있다. 하타노 세쓰코 교수를 비롯 일본 주요 언론이 잇달아 서평을 실은 가운데 마야니치 신문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한 역사관에 의한 역사의 소유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고뇌를 응시하는 겸허한 시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문화적 차이를 포함한다손 치더라도 이광수와 소세키는 남의 시선에 간혀 산다는 점, 각자 처한 제반적 상황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하며 자신의 모습이 과거 특정한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태생적인 ‘성격’ 탓으로 돌린다는 점은 상당히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살아나가겠다는 삶을 버터내는 열정 역시 공통지점이다. 그 열정은 작품 곳곳에서 허영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광수와 소세키는 인생의 고단함이 결국 타인으로부터 오는데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타인과의 관계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한다. 무엇보다 타인을 위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도, 타인을 위해 억지로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던 이광수와 소세키는 병을 통해 자각하지 못한 타인 즉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노화, 질병이 가져다주는 고단함,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가치를 단순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생산성만을 측정해 오는 삶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을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병(病)임을 절감케 한다. 병의 무게감을 글을 쓰는 행위로 작가로서의 책무, 나아가 가족으로 시선을 돌린 이광수와 소세키를 새로운 관점에서 읽어내야만 하는 이유이자 향후 다양한 자료들을 구축하여 연구해야 할 과제를 남긴다.

【참고문헌】

- 권혁건(2007)『나쓰메 소세키—생애와 작품』고려대학교출판부, p.131
 강원국(2018)『강원국의 글쓰기』메디치, pp.94-95
 김소륜(2009)「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 질병 모티프를 중심으로」『이화어문집』Vol.27, p.119
 김윤식(1999)『이광수와 그의 시대2』술, p.168
 데이비드 호킨스 저, 백영미 역(2011)『의식 혁명-힘과 위력, 인간 행동의 숨은 결정자』관미동
 안영미(2002)「이광수 초기 단편에 나타난 ‘병 모티프’ 고찰」『어문논총』Vol.-No.37, pp.177-178
 알프레드 아들러 저, 홍혜경 역(2016)『아들러의 인간이해』을유문화사, p.29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저, 이진 역(2018) 『죽음과 죽어감』청미

李光洙(1971)『李光洙全集』三中堂

하타노 세츠코 저, 최주한 역(2016)『이광수, 일본을 만나다』푸른역사, p.164

平岡敏夫 編(1990)『漱石日記』岩波文庫

논문투고일 : 2019년 03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4월 16일

1차 수정일 : 2019년 05월 09일

2차 수정일 : 2019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5월 17일

< 要 旨 >

이광수(李光洙)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병(病)을 바라보는 관점
신윤주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은 이광수에게는 「작품 『무정』 탄생 100주년, 소세키에게는 「사후 100년」이라는 특별한 시간적 의미가 겹친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미디어에서 시사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 작가로 대표되는 이광수와 소세키 두 사람 모두에게 발병되었던 병(病)이 결국 지식인이자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병으로 인해 두 사람 모두 병상에서 일련의 수필과 일기를 통해 병(病)을 바라보는 그들 작가로서의 관점이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광수와 소세키는 남의 시선에 간혀 산다는 점, 각자 처한 제반적 상황에는 분명 차이가 존재하며 자신의 모습이 과거 특정한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태생적인 ‘성격’ 탓으로 돌린다는 점은 상당히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육체적 고통 앞에서도 삶을 버텨내겠다는 열정 역시 공통지점이다. 무엇보다 이광수와 소세키는 병(病)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병원생활, 요양과 같은 경험을 통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괴로운 속내를 밝힌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볼 때 작가적 기질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다. 인간을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병(病)의 무게감을 고통을 느끼는 그 자체로 방치해 두지 않고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한 작가로서의 책무, 나아가 가족으로 시선을 돌린 이광수와 소세키만의 병을 치유하는 자신들의 관점이 그대로 읽히는 지점이다.

A Comparative Views of Lee Kwang-su and Soseki Natsume on Their Illnesses
Shin, Yun-Ju

Various media in Korea and Japan pointed out that Lee Kwang-soo overlaps with Soseki Natsume in December 2016 and January 2017,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his work Moojeong” and the special meaning of One hundred years after Soseki’s death. In this paper tried to examine how the individual illnesses of both Korean and Japanese national writers such as Lee Kwang Soo and Soseki influenced those who were intellectual author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what the viewpoints of both were as a writer looking at illness in a series of essays and diaries written on their bedside.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situations of Lee Kwang-soo and Soseki, but it is very similar in the fact that they lived in the sight of others, had ‘trauma’ from the particular experiences in the past and found out the causes of situations from their inherent ‘natures’. In addition to the physical pain that lies in the path of life and death, their own enthusiasm for survival will also be common. Most of all, Lee Kwang Soo and Soseki reveal the painful intentions that they failed to perform properly as a husband and father due to experiences on illnesses, such as hospitalization, hospital life, and medical treatments. This paper concluded Lee Kwang-su and Soseki turned their eyes toward their family, also had to write their writings as a writer under any circumstances, instead of neglecting the results of the illness that make humans the weakest,